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2호 2004 (283-296)

여주(驪州)의 경제지리 변화

— 토지이용, 주민생활 실태,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를 중심으로 —

손 용 택*

요약 : 본 연구는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생활실태의 변화, 생활공간의 입지변화를 살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촌 토지이용의 감소와 도시적 토지이용의 완만한 증가를 보인다. 완만한 속도의 도시화를 나타내는 기능으로서 관광농업이 나타나고 농외 겸업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다. 여주지역 육로교통(고속도로통과)의 발달은 생활공간상의 입지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도권 외곽의 농촌이던 이곳은 도시화가 더딘 곳이었지만, 곧 전철 등의 개통 등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치밀한 도시계획이 수행될 때,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주요어 : 여주, 도시적 토지이용 증가, 관광농업 출현, 농외 겸업활동 증가, 생활공간 입지의 변화, 쾌적한 도시 변화 예측

1. 서 론

1) 연구동기

최근 인문지리학의 연구 경향 중 지역지리 연구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인 것처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힘입은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은 곧 세계화의 지름길로 가는 것과 같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수도권 농촌지역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그 동안 변화속도가 수도권의 타 지역들에 비해 완만한 곳은 동부 및 동북부 지방이었다.[1] 이 보다는 덜 하지만 동남부의 여주 및 이천 지방도 수도권 농촌지역으로서 비교적 발전속도가 더딘 편이었다. 특히, 여주는 조선조 역사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관광지로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전철이 여주 지역을 연결하여 서울까지 1시간대 이내로 거리마찰을 좁힐 수 있을 경우 이 지역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주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활거주공간으로서 선호의 정도를 살펴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음으로써 여주지역 발전의 방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교수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10년 동안의 여주군의 토지이용 변화를 조사하여 수도권 농촌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여주지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예측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해석한다. 셋째, 지형도 상에서 특정 사례 마을들을 택해, 과거와 오늘날의 생활공간 입지의 변화를 추적한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여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여주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살피기 위해 군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목을 조사하였다. 농촌적 토지이용과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분류하여 그 지목면적, 필지규모와 필지수의 변화를 살폈다. 둘째, 설문 조사를 통해 수도권 농촌 지역 마을의 농업활동 실태와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이농실태, 관광농업과 취미농업, 겸업활동 실태, 농촌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등이다. 셋째, 여주(驪州)의 과거 지형도(1965, 1975, 1984)와 현 지형도(2003)상에서 사례마을을 정하고 이들 마을들의 시계열적 생활공간상의 입지 이동과 변화를 살폈다. 사례마을은 시가지 지역, 나루터 취락, 늪지 마을, 내륙 배산임수촌, 도로변 마을을 각각 택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를 뿌리고 회수된 설문지의 회수지역 분포와 양이 고르지 못하며, 표집의 규모가 충분치 못한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둘째, 지형도상의 마을입지에 대한 변화 관찰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 토지이용 변화

여주의 토지이용의 변화는 이 지역의 변화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촌적인 토지이용과 도시적인 토지이용의 증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지역의 동태적인 변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2] 여기서는 편의상 농업적 토지이용에 해당하는 지목으로서 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를, 도시적 토지이용의 지목으로는 대지, 공장용지, 도로, 유원지, 체육용지 등을 골라 그 변화 양상을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여주군의 밭 면적은 농업적 토지이용은 1991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계속 줄어왔다. 답의 경우는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약간 늘었다가 다시 줄었으나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1991년의 수준을 거의 유지하는 수준이다. 임야는 소폭적이기는 하지만 밭과 마찬가지로 계속 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수원 면적과 목장용지의 면적은 10년 기간 동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한 농촌적 토지이용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여주군의 토지이용은 도시화의 압력을 받아 점차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잠식되어 가는 외측접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주-이천쌀의 명성을 이어오듯 논농사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과 자부심으로 논의 면적은 정체상태를 유지한 채 논농사 기술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도시 소비시장을 향한 과수농업과 낙농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더욱 도시화가 진전되면 이 기능 역시 축소되면서 더욱 더 거리가 멀어진 수도권 농촌의 외곽으로 밀려 날 것으로 예측된다. 1990

표 1. 여주군의 농업적 토지이용 변화

(단위 : 평방미터, %)

구분	전 (A)	답 (B)	임야 (C)	과수원 (D)	목장용지 (E)	기타	총계	A...+E
1991	74,221,497 (12.2)	105,941,658 (17.4)	335,423,500 (55.03)	822,927 (0.14)	3,304,001 (0.54)	89,753,600 (14.73)	609,467,183 (100.00)	519,713,583 (85.27)
1996	73,369,517 (12.06)	108,529,794 (17.83)	330,338,050 (54.28)	997,440 (0.16)	3,860,666 (0.63)	91,434,185 (15.04)	608,529,652 (100.00)	517,095,467 (84.97)
2001	70,739,945 (11.60)	106,003,775 (17.38)	322,832,935 (52.93)	1,173,675 (0.19)	4,269,830 (0.70)	104,949,134 (17.20)	609,969,294 (100.00)	505,020,160 (82.79)

출처 : 제37회(1997), 제42회 여주통계연보(2002)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표 2. 여주군의 도시적 토지이용 변화

(단위 : 평방미터, %)

구분	대지(A)	공장용지(B)	도로(C)	체육용지(D)	유원지(E)	기타	총계	A...+E
1991	8,912,679 (1.46)	1,925,547 (0.32)	9,350,948 (1.53)	-	706,720 (0.12)	588,571,289 (96.57)	609,467,183 (100.00)	20,895,894 (3.43)
1996	9,970,919 (1.64)	2,851,076 (0.47)	12,229,808 (2.00)	5,264,562 (0.87)	138,458 (0.02)	578,074,829 (95.00)	608,529,652 (100.00)	30,454,823 (5.00)
2001	12,065,206 (1.98)	3,680,469 (0.61)	16,318,345 (2.68)	7,010,549 (1.15)	214,069 (0.04)	568,680,656 (93.54)	607,969,294 (100.00)	39,288,638 (6.46)

출처 : 제37회(1997), 제42회 여주통계연보(2002)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표 3. 여주군 읍·면별 도시적 토지이용 지목 면적(2001)

(단위 : 평방미터, %)

구분	여주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대지	2,221,625 (3.93)	1,006,517 (1.40)	1,865,704 (2.48)	1,045,243 (1.97)	917,148 (2.07)	666,761 (1.60)	475,755 (1.45)	1,405,196 (1.85)	1,701,468 (2.06)	759,789 (1.03)
공장 용지	1,074,983 (1.90)	273,194 (0.38)	889,096 (1.18)	244,760 (0.46)	151,212 (0.34)	59,797 (0.14)	68,929 (0.21)	164,306 (0.22)	650,820 (0.79)	103,372 (0.14)
학교 용지	300,921 (0.53)	68,248 (0.10)	108,962 (0.14)	105,484 (0.20)	80,979 (0.18)	27,453 (0.07)	39,101 (0.12)	75,054 (0.10)	53,944 (0.07)	73,993 (0.10)
도로	2,375,823 (4.20)	1,232,360 (1.72)	2,974,191 (3.95)	1,586,766 (2.98)	1,570,306 (3.55)	718,230 (1.72)	294,637 (0.90)	2,073,265 (2,73)	1,643,464 (1.99)	1,849,302 (2.50)
기타	50,574,035 (89.44)	69,104,790 (96.40)	69,446,929 (92.25)	50,197,955 (94.39)	41,508,424 (93.86)	40,244,325 (96.47)	31,997,721 (97.32)	72,147,086 (95.10)	78,479,787 (95.09)	71,270,084 (96.23)
총계	56,547,387 (100.00)	71,685,109 (100.00)	75,284,882 (100.00)	53,180,208 (100.00)	44,228,069 (100.00)	41,716,566 (100.00)	32,876,143 (100.00)	75,864,907 (100.00)	82,529,483 (100.00)	74,056,540 (100.00)

출처 : 제42회 여주통계연보(2001)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표 4. 여주군 읍·면별 농촌 토지이용 지목 면적(2001)

(단위 : 평방미터, %)

구분	여주	점동	가남	능서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전	7,142,129 (12.63)	5,835,994 (8.14)	11,081,221 (14.72)	9,558,878 (17.97)	6,530,207 (14.76)	3,430,304 (8.22)	2,523,448 (7.68)	10,970,251 (14.46)	8,072,254 (9.78)	5,595,259 (7.56)
답	9,417,808 (16.65)	11,949,830 (16.67)	17,120,594 (22.74)	14,036,915 (26.39)	12,896,369 (29.16)	4,109,889 (9.85)	2,905,261 (8.84)	14,717,864 (19.40)	12,214,080 (14.80)	6,635,164 (8.96)
임야	25,787,441 (45.60)	42,729,838 (59.61)	33,135,088 (44.01)	17,892,675 (33.65)	15,839,201 (35.81)	28,267,503 (67.76)	25,335,150 (77.06)	32,935,491 (43.41)	48,109,203 (58.29)	52,801,345 (71.30)
기타	14,200,009 (25.11)	11,169,447 (15.58)	13,947,979 (18.53)	11,691,740 (22.36)	8,962,292 (20.26)	5,908,870 (14.16)	2,112,284 (6.42)	17,241,301 (22.73)	14,133,946 (17.13)	9,024,772 (12.19)
총계	56,547,387 (100.00)	71,685,109 (100.00)	75,284,882 (100.00)	53,180,208 (100.00)	44,228,069 (100.00)	41,716,566 (100.00)	32,876,143 (100.00)	75,864,907 (100.00)	82,529,483 (100.00)	74,056,540 (100.00)

출처 : 제42회 여주통계연보(2001)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년대 중반 수도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패턴이 입증된 바 있다.[3)]

여주군의 지목 가운데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 지목 가운데 유원지 정도만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모든 지목에 걸쳐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주군 지역이 꾸준히 도시화의 압력을 받으며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한다.

10개의 읍, 면 단위지역들 가운데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여주읍, 가남면, 흥천면, 북내면 등이다.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여주읍과 가남면이 다른 지역을 단연 압도한다. 도로용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역시 여주읍과 가남면, 흥천면 등의 지역들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주군내의 10개 읍, 면 단위지역 가운데 앞서가면서 도시화를 견인하는 곳들은 여주읍과 가남면, 흥천면 등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들 10개의 단위지역들 가운데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능서면, 흥천면, 가남면, 대신면 등이다.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흥천면, 능서면, 가남면 등이다. 그리고 임야면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산북면, 강천면, 금사면, 점동면 등의 순이다. 가남면과 흥천면은 국지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지역이면서도 농업적 토지이용과 관련한 지목의 면적이 넓은 단위지역들임을 알수 있고, 능서면, 산북면, 강천면, 금사면, 점동면 등은 순수 농업적 토지이용의 지목 면적들이 넓으면서 외측접지의 농촌적 경관을 잘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주민들의 생활실태 변화

1) 이농(離農)

여주군의 각 읍, 면의 자연마을(행정단위 리)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외측 접지의 농업에 대

표 5. 여주 지역의 이농 실태

지 역	이촌 농가	폐농가	폐농지
여주읍 매룡리	1농('01년)	없음	없음
흥천면 신근리	없음	없음	없음
흥천면 하다리	2농('01년), 7농('02년), 10농('03년)	5채	없음
흥천면 외사리	2농('03년)	없음	없음
점동면 관한리	없음	없음	없음
점동면 당진2리	2농('01년), 1농('02년), 2농('03년)	1채	200-500평
점동면 삼합2리	없음	없음	2000평 이상
대신면 가산1리	없음	3채	없음
능서면 내양1리	2농('02년), 3농('03년)	4채	없음
능서면 마래리	없음	1채	없음
강천면 적금2리	없음	1채	없음
강천면 부평1리	1농('02년)	없음	500-1,000평
금사면 궁리	없음	없음	없음
금사면 도곡리	없음	5채	1,000-2,000평
가남면 건장리	없음	없음	없음
북내면 운촌리	없음	1채	100평 내외

출처 : 필자의 설문조사에 의함

한 이농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4)]

여주읍 매룡리, 흥천면 신근리, 하다리, 외사리, 점동면의 관한리, 대신면의 가산 1리, 능서면의 내양 1리, 점동면의 당진 2리, 삼합 1리, 강천면의 적금 2리, 금사면의 궁리, 능서면의 마래리, 도곡리, 가남면의 건장리 등 자연마을의 이장을 맡고계신 분들로부터의 답변을 토대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주군의 16개 자연 마을 가운데 근래 3년(01년-03년) 간 이촌 농가가 나타난 마을은 6개 이다. 흥천면의 하다리 마을에서는 2001년도에 2가구, 2002년도에 7가구, 2003년도에 10가구 등 최근까지도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흥천면의 외사리에서도 2003년도에 2가구의 이농이 있었다. 이농 가구가 나타나는 5개 마을 중 2개가 흥천면 소재의 마을이고, 점동면의 당진 2리, 능서면의 내양 1리, 강천면의 부평 1리 등의 마을에서 이농 농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을 내에 이농 이후 버려진 채로 있는 폐농가 분포 상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자연 마을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마을에 폐농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흥천면 하다리와 금사면 도곡리에 각 5채씩 폐농가가 나타나고 능서면 내양 1리에서 4채, 대신면 가산 1리에 3채, 그 밖의 마을들에서 1채씩의 폐농가 분포를 보인다.

또한 일손이 모자라거나, 수익성 면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버려진 상태의 폐농지 유무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16개 마을 중 5개 마을에서 폐농지가 있다고 답하였다. 100평 내외에서 2000평 이상까지 급간을 다양하게 두고 묻는 설문에 대해 5개 마을의 폐농지의 규모는 최소 100평 내외부터 2000평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표 6. 여주 지역의 관광농업과 취미농업 실태

지 역	관광농업 종류	주말농장
여주읍 매룡리	없음	없음
흥천면 신근리	없음	없음
흥천면 하다리	예절교육서당, 도자기 체험장	없음
흥천면 외사리	없음	없음
점동면 관한리	인터넷 주문 농산물직판	없음
점동면 당진2리	없음	없음
점동면 삼합1리	인공 낚시터	없음
대신면 가산1리	없음	없음
능서면 내양1리	없음	없음
능서면 마래리	없음	없음
강천면 적금2리	없음	없음
강천면 부평1리	없음	없음
금사면 궁리	농장 가두매점	200-300평
금사면 도곡리	농장 문전판매	100-200평
가남면 건장리	인공 낚시터	없음
북내면 운촌리	인공 낚시터	없음

출처 : 필자의 설문조사에 의함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수도권 농촌의 외측접지에 해당하는 여주군의 마을들 가운데 도시화가 더딘 외지 마을들에서는 지금도 활발히 이농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개 자연 마을 가운데 관광농업이 행해지는 곳은 7개 마을이므로 약 절반에 가까운 마을에서 관광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관광농업으로는 도자기 체험장, 예절교육장으로서의 서당운영, 인터넷 주문 농작물직판, 인공낚시터, 농장 가두매점, 농장 문전판매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종류의 관광농업들은 도시화가 왕성한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능들과 일치한다. 곧 여주군의 마을들에서도 대도시 주변의 관광농원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시화가 왕성히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한편, 취미농업으로서의 주말농장이 운영되는 곳은 16개 마을 가운데 금사면의 두 곳뿐이다. 주말농장의 운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대도시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이러한 기능이 활발히 일어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단위의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가를 묻고, 보기로서 관광, 공업활동, 상업활동, 농업활동, 기타 등의 항목을 주고 고르게 하였다. 16개 마을 가운데 15개 마을에서 주요 소득원은 농업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의 기반은 여전히 농업활동에 의존하는 농촌적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읍, 면 소재지를 제외한 여주군 농촌 마을들의 생계의 주축은 여전히 농촌경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 한편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이면에는 주민들의 정서상 농촌사회에 대한 미련과 함께 농촌사회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정서적 뿌리를 두고 있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다음에서 논하는 것과 같이 겸업(부업)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비율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순수 농업활동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6]

응답한 16개 마을 중에 겸업(부업)을 행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마을은 13개 마을이나 된다. 일정 거리를 두고 겸업(부업)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는 여주군 내의 여주 읍 또는 인근의 면 소재지, 여주군과 접해있는 이천 시와 장호원 읍 등지이다. 겸업 활동이 마을 내에서 행해질 경우는 도보 30분 이내의 거리가 대부분이고, 마을 밖 일정거리를 둔 겸업 활동 장소까지의 교통소요시간은 버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넘지 않았다.[7] 이와 같은 패턴은 1990년대 중반 수도

표 7. 여주 지역 주민들의 겸업활동 실태

(겸업농가/전체농가)

지 역	겸업농/전체농	겸업 장소	이동 소요시간	2종겸업 소득율
여주읍 매룡리	7/45	여주읍	도보 30분 이내	30%
흥천면 신근리	12/20	여주읍, 이천시	버스 30분 이내	50% 이상
흥천면 하다리	10/102	이천시, 여주읍	버스 30분 이내	10%
흥천면 외사리	25/200	외사리 마을	도보 30분 이내	10%
점동면 관한리	11/57	장호원읍, 점동면	버스 30분 이내	10%
점동면 당진2리	없음	-	-	-
점동면 삼합1리	5/36	점동면	도보 30분 이내	10%
대신면 가산1리	3/58	여주읍	버스 30분 이내	-
능서면 내양1리	7/52	여주읍, 능서면	버스 1시간 이상	50% 이상
능서면 마래리	70/110	여주읍, 이천시	버스 1시간 정도	30%
강천면 적금2리	없음	-		-
강천면 부평1리	5/48	강천면, 전국(노무)	버스 30분 이내	10%
금사면 궁리	없음	-		-
금사면 도곡리	5/46	광주군 실촌면	버스 30분 이내	30%
가남면 건장리	10/10	가남면, 이천시	도보, 버스(30분)	50% 이상
북내면 운촌리	5/110	가남면, 여주읍	버스 1시간 정도	10%

출처 : 필자의 설문조사에 의함

권 농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8)]

한편, 전체 농가 중에 겸업(부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농가(2종겸업농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2개 마을 중 10% 정도라고 답한 곳이 6개 마을, 30% 정도라고 답한 마을이 3개 마을, 50% 이상이라고 답한 마을이 3개 마을이었다.

부업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날품팔이(막노동), 인근 이천시의 현대전자서비스센타에서의 아르바이트, 작은 회사 경비, 가내수공업,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 포장지 접기, 비닐하우스 작업, 포대(자루)만들기, 공장, 골프장 아르바이트, 마늘까기, 도자기 공장 등 다양하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수도권 농촌지역 중에서도 외측접지에 속하는 여주군의 설문에 답한 16개 마을 가운데 12개의 마을에서 겸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장소는 인근의 시나 읍,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겸업(부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순 농업소득보다 높은 농가의 비율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한 폭을 보였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16개 마을에서 농업 또는 농촌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일은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 대해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활동이 무력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9)] 그리고 도시화 바람을 타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의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풍기문란 등 사회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답과 공장 등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없어지고 마을이 점차 오염되고 있어 걱정된다는 답도 나왔다.[10]

그 밖에 수변구역이라는 제한조건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까지 침해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는 답과 함께 평당 30만원을 넘던 땅값이 수변구역 규제조치 이후 현재는 3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바뀌어 버렸음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편 1차 산업의 경시풍조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의욕 저하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마을을 지키며 9대째 살고 있는 모 이장은 농촌경제의 피폐화를 지켜보며 과연 농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의 심화, 농기계 공급가격의 불합리(농민들은 상대적으로 고가로 인식) 등은 더욱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정부에서 한 두개 기업의 공적자금 투입액을 농촌에 투자할 경우 농가부채 탕감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1차 산업의 경시풍조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게다가 외지인들이 논밭과 임야를 투기로 마구 사들이고 있으므로 농촌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젊은 노동인력이 빠져나가 농촌 일손이 모자라는 노령화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이 사라지니 마을 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는 대답은 수도권 농촌지역에서도 이러한 곳이 있음을 실감케 한다.

살고 있는 마을이 마음 편하게 정붙이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많아서 좋다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11] 이어서 공기도 맑고 푸른 산이 많으며, 맑은 물이 흘러 살기 좋다는 내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다.[12]

4. 생활공간의 입지 변화

여주읍의 생활 지역 공간변화를 살피기 위해 1965년도부터 200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정 연도에 간행된 1:25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몇 개의 마을을 골라 변화를 추적하였다.[13] 도시화되어가는 정도를 살피기 위해, 여주읍에 속하는 마을들 중 과거 나루터 취락으로 발달했던 '우만이(又晩里)' 취락과 '브라우'취락, 그리고 남한강 모래강변 안쪽에 위치한 늪지마을인 '연촌'(淵村), 강가로부터 비교적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산아래 마을로 입지한 매룡리 '용강골', 여주 읍의 남쪽을 거치는 국도, 즉 오늘날의 영동고속도로변의 마을인 '멱골' 등의 지형도 상에 나타난 가구수의 밀집도와 변화를 통해 홍망성쇠를 추적하고 간단하지만 원인을 해명해 보고자 하였다.

1) 읍내 시가지 지역(상리上里, 하리下里, 창리倉里)

여주군에서 가장 인구집중이 뚜렷하고 시가지화도 분명하여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여주읍이고 읍내에서도 남한강변의 옛 여주나루 부근의 상리(上里), 하리(下理), 창리(倉理)를 중심으로 한 일대이다. 그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입안되어 궤도에 오를 무렵인 1965년도의 이 지역은 가구의 뚜렷한 밀집양상은 보였지만 도시적인 토지이용 면모로서의 시가지화된 모습을 보이기에는 이른 단계였다. 10년 후인 1975년도의 이 일대는 북쪽에 남한강변을 면하고 지척에 여주나루를 둔 상리와 하리는 괄목할 만한 시가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남쪽의 창리 일부도 시가지화된 토지이용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당시 여주군 전체에서 포장된 도로는 여주읍의 남쪽을 지나가는 50번 국도뿐이

표 8. 사례마을의 호(戶)수 변화

(단위 : 호)

구 분	나루터 취락		강변 늪지촌	내륙 배산임수촌	노변 마을
	우만이 마을	브라우 마을	연촌(淵村)	용강골	멱골
1965	38	33	8	12	23
1975	30	35	24	18	28
1984	39	34	22	17	30
2003	9	8	4	4	8

출처 : 1965년, 1975년, 1984년, 2003년 국립지리원 간행 1:25000 지형도에서 취함

다.[14] 그 후 9년이 지난 1984년이 되면 이 일대는 건물지대로 자리잡으면서 명실공히 시가지(built-up area)로 더욱 확대된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가지 내의 도로망은 격자상의 질서정연한 모양을 띤다. 당시 지형도 상의 4번 도로(수원-강릉간 고속국도)와 상리, 하리, 창리의 시가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7번 국도가 포장되어 간선도로의 역할을 한다. 이후 19년이 경과한 후 2003년도에는 이 일대의 시가지화는 더욱 뚜렷하여지고 건물 및 상가지대가 크게 확장되며 포장도로는 거미줄처럼 여주읍내를 연결하여 발달된 모습을 보여준다.

2) '우만이'와 '브라우' 마을(나루터 배후취락)

여주 나루 인근의 배후지 마을로 발달한 상리, 하리 등은 오늘날의 여주읍내 중심가로 크게 발달하면서 주변의 창리까지 합하여 도시적인 시가지로 변화된 반면, 규모는 작지만 같은 나루터의 배후지 마을로 발달하여 1965년, 1975년, 1984년의 지형도상에 마을의 커다란 흥망성쇠 없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던 '우만이' 마을과 '브라우' 마을은 19년 후인 2003년도에 호수가 1/4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명맥만 유지하는 남은 호(戶) 수마저 드문 드문 흔적만을 남겨 여실히 몰락한 마을로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남한 강변에 발달했던 나루터 취락들이 육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현대식 교각을 갖춘 완벽한 다리가 놓이고 거미줄과 같은 포장 간선도로망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된 수운교통의 명암을 보는 것 같다. 육로교통이 흥하고 수운교통이 기울면서 나타나는 시운이라 보여진다.

3) 강변 늪지 마을('연촌'淵村)

강변 늪지촌인 '연촌'(淵村)은 1965년도만 하더라도 마을 규모가 8호에 그쳐 괄목할만하게 발달한 촌은 아니었다. 그러나 1975년과 1984년도에는 약 세배 정도가 커진 20여 호를 유지하다가 2003년도에는 과거 이상으로 몰락한 마을로 쇠퇴해 버린다. 이 '연촌'이야말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영고성쇠로 보여진다. 즉 경제발달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전인 6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강변의 치수가 그리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홍수 범람에 따른 대책이 완벽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마을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늪지를 활용한 논농사를 위해 일정 호수의 마을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인 70년대를 거치면서 농어촌의 새마을 운동 등으로 마을의 모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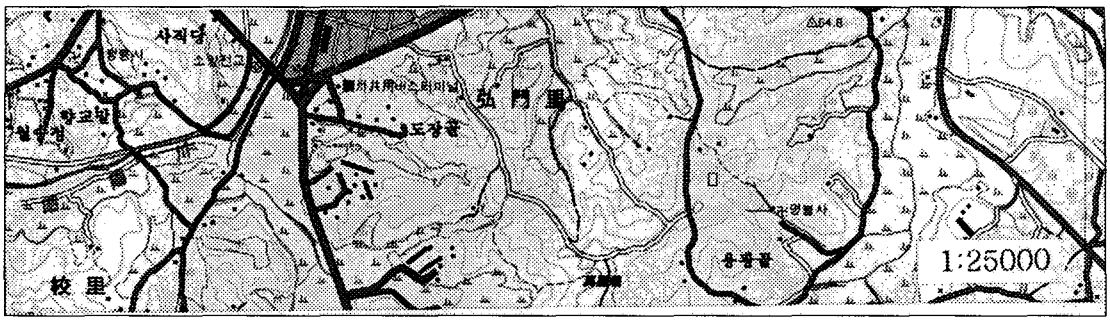

그림 1. 용강골 마을의 개관

일신하게 되고 정부 정책의 새로운 드라이브가 걸린 안전하고 편리한 새마을로 발달, 변모하면서 80년대까지 '연촌'은 규모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농촌이 겪었듯이 이농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읍내나 대도시로 마을 주민들이 속속 떠나면서 호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내륙 배산임수촌(용강골)

내륙의 낮은 구릉을 끼고 입지한 마을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의 '용강골'은 늪지촌인 '연촌'의 흥망성쇠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수도권 농촌지역의 외측접지에 해당하는 마을이며, 낮은 구릉을 옆에 끼고 있고 남한강의 작은 지류가 멀지 않은 곳을 흐르고 있어 농사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다. 실제로 마을 근처 가까이에 이르도록 논으로 일구어 주변은 논농사가 행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마을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평범한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이라 할 수 있다.[15]

마을의 호(戶) 수도 1965년의 12호에서 1975년의 18호, 1984년의 17호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다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년 후인 2003년도에 4호로 급격하게 호수가 줄어든 것은 다른 사례 마을들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농촌에 불어닥친 이농의 여파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이 지역은 환경적으로는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입증하듯 2003년도 지형도상에는 '용강골' 마을 앞에 과거에 없던 작은 절 '명불사'가 들어 앉았다. 마을의 입지가 풍수에서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지의 사람들이 이사 들어와 살고 싶어 할만한 마을이라 여겨진다.

5) 노변 마을(멱골)

'멱골'은 남한강의 작은 지류를 지척에 두고 있으면서 여주군내에서 가장 일찍이 포장되고 이 지역을 경유하여 강릉까지 연결되는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후에 영동고속도로가 되는 이 길은 1965년도에는 없었고, 따라서 '멱골'은 중요한 간선도로인 이 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자연 발생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마을 호(戶) 수의 증가 상황도 65년도에 23호, 75년도에 28호, 84년도에 30호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19년 후인 2003년도 지형도상에서는 8호로 줄어들었다. 국도가 들어서기 전의 입지로 말하자면 양호한 배산임수의 조건이 '용강골' 못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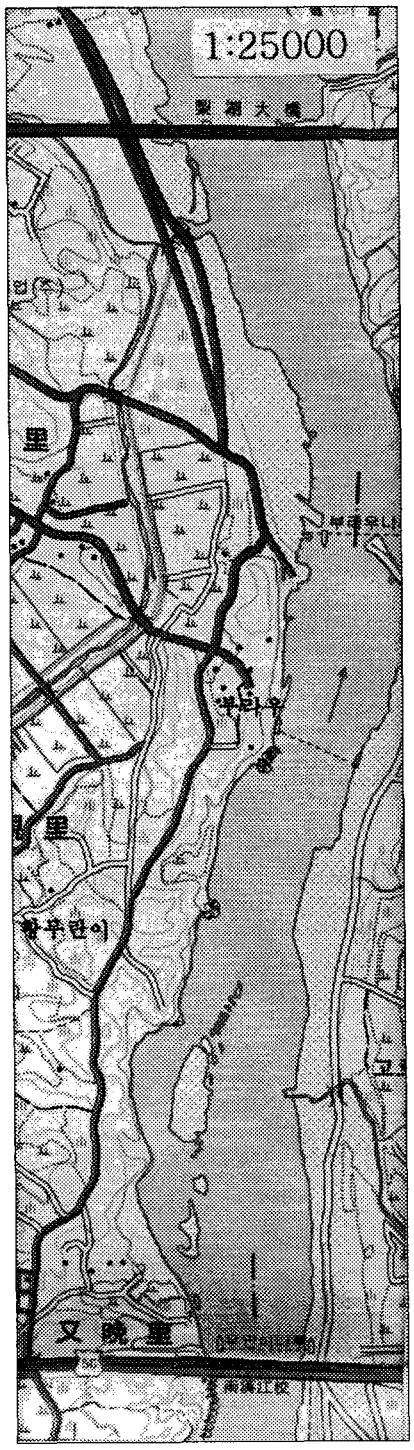

그림 2. 부라우 마을의 개관

다. 오히려 남한강의 지류와 본류의 물을 당겨 관개용수로 이용하려한다면 용강골보다 물에 가까이 있는 위치로 인해 더욱 유리한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후에 인근에 길이 놓이게 되었을 때 그만큼 타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졌을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마을이 더욱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영동고속도로처럼 유통량이 큰 도로가 되기 이전 상태의 국도일 때 가능한 이야기 일 것이다. 그 길이 포장도로화되고 마침내는 영동고속도로로 기능이 확대되고 유통량이 커지면서 '멱골'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끄럽고 겁나는 '괴물'을 마을 앞에 둔 셈이고 쉽게 중간에 끼어들어 이용할 수도 없는 대로가 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접근성에서 멀어졌다는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며 마을의 어린이들이나 풀어먹이는 가축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험천만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압박감이 작용하는데다가 한국의 많은 농촌마을들이 겪었듯이 이촌향도 현상이 예외 없이 '멱골'에도 거쳐갔다고 추정해 볼 때, 2003년도 지형도 상의 마을의 호(戶)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해명된다.

이상 다섯 군데의 사례 마을들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 분포하는 생활공간들이다. 남한강이 굽이돌아 흐르는 강변을 가까이 둔 마을들이고, 크고 험하지는 않지만 수도권 내에서 가평과 양평에 이어 비교적 산지가 많은 자연환경의 절대적 입지를 바탕으로 성립한 마을들이다. 초기의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운교통의 발달로 흥했다가, 이후 육로 교통의 발달로 쇠락의 길을 걷는 나루터 취락들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

강변 늪지촌은 수변환경의 위험을 염두에 둔

주민들의 환경인식의 대응방식에 따라 발전과 쇠퇴의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배산임수의 상대적인 내륙마을과 고속국도변 마을의 성장과 몰락의 원인을 설명해 보았다.

약 40년 동안의 생활공간의 변화는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 지역의 시가지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농촌과 관계된 기능과 토지이용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농촌지역인 여주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생활공간 변화, 생활실태의 변화 등을 살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생활공간의 사례를 살펴 지역성을 규명코자 한 것이다. 여주 지역을 사례로 한 본 연구결과는 전국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살필 수 있는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성격이 강한 지목(예; 전, 답, 임야)과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목(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등)의 필지변화와 면적변화를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변화를 살폈고, 또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당면 문제점과,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주거 선호 조건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한 시계열적인 생활공간상의 입지 변화를 지형도를 통해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0년동안 여주의 인구는 약간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도시를 향한 이동의 결과, 즉 사회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읍, 면별 단위 지역에 따른 다소 불규칙성은 인정되지민 농업적 토지이용(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을, 반대로 도시적 토지이용(대지, 공장용지, 도로, 유원지, 체육용지 등)은 대체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도시화가 완만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화가 더딘 마을에서는 이농 현상이 두드러져 농촌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고, 동시에 폐농가와 폐농지가 나타났다. 관광농업이 서서히 출현하고 있으며, 농외 겸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즉, 도자기 체험장, 예절교육장, 인터넷 주문 농작물직판, 인공낚시터, 농장 가두매점, 농장 문전판매 등 관광농업성 관련 기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응답한 마을 가운데 80% 이상이 농업소득보다 겸업소득이 높은 마을로 나타나 겸업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사회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제의 무력화를 들고 있다. 오로지 긍정적인 요소는 정든 이웃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온 점을 들고 있다.

넷째, 가장 급속히 변한 것은 교통로의 발달이고, 이에 따라 주거 생활공간인 마을의 입지 변화가 괄목할 만하다.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컨대, 여주 지역은 수도권의 외측 접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이 혼재하는 곳이며, 도시화의 속도는 완만한 편이다. 도시화의 가속도가 붙기 직전의 가변적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통의 발달에 따른 도시화의 급물살을 대비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때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지역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

1) 손용택, 1996, "수도권 농업공간의 구조 변화,"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2) 여주통계연보에 의하면 토지지목별 현황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미복구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3) 손용택, 1996, "大都市周邊 農業空間의 構造變化,"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pp.48-62.
4) 읍, 면별 단위지역 9개에 속한 행정 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2003년 12월 10일에 설문을 뿌리고 12월 31일까지 들어 온 16개 마을의 응답을 분석하였다.(산북면 제외)
5) 강천면 적금 2리에서만 기타란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6) 농업외 소득이 순수 농업소득보다 적은 경우를 1종 겸업, 많은 경우를 2종겸업으로 분류한다.
7) 외지에서 겸업(부업)에 종사할 때 소요되는 교통시간의 급간은 '① 도보 30분 이내', '② 버스(자가용)으로 30분 이내', '③ 버스(자가용) 1시간 정도', '④ 버스(자가용)로 1시간 이상'과 같이 네 개 급간을 두었다. 그리고 겸업(부업) 일거리로서 전국 각지의 일터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노무자의 경우는 여기서 논외로 함.
8) 손용택, 1996, "大都市周邊 農業空間의 構造變化; 首都圈을 事例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pp.124-129.
9) 15개 마을의 이장님들 답 중 62%를 점한다.
10) 전체 답중 이에 대한 것은 각각 9.5%를 점한다.
11) 설문의 답 중에 53%가 본 항목에 동의함.
12)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동의를 표함.
13) 당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간행된 지형도상의 공간변화 모습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으나 지형도 구득의 어려움이 있어 65년, 75년, 84년, 2003년의 지형도를 비교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중반에 간행된 지형도를 구해 함께 비교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
14) 이 도로가 후에 수원-강릉간을 잇는 영동고속도로가 된다.
15) 지명 '용강골'은 2003년도 간행 지형도에 '용광골'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오기인지는 알 수 없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여주군 지적과, 2003, 지적공부등록지현황.
농정연구센터, 2002, 계간 농정연구, 겨울호(통권4호).
박석두 · 황의식, 2002, "농지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42.
손용택, 1996, "대도시주변 농업공간의 구조변화 : 수도권을 사례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여수상공회의소, 1998, 여수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여수시 삶의 질과 도시발전.
여주군지편찬위원회, 1989, 여주군지.
여주군, 1997, 제 37회 여주통계연보(1997).
여주군, 2002, 제 42회 여주통계연보(2002).

교신저자(Correspondence): 손용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운중동 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Tel: 017-323-3106, Fax: 031-709-6572, E-mail: sohn@aks.ac.kr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7, No. 2, 2004 (283-296)

Change of Economic Geography in Yeo-ju(여주, 麗州)
- Focusing on land utilization, living condition of inhabitants and change of living space -

Yong-Taek Sohn*

* *Associate Professo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ohn@aks.ac.kr)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locality of living space which is changing drastically by exploring change of land utilization, living space and condition in Yeo-ju, an agricultural area around Seoul.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①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tends to decrease, while civic land utilization tends to increase.

② Change of living space due to transportation development is remarkable. Big ferry town (Yeoju-town) grew to a city, while small ferry town fell away.

③ In villages on slow urbanization, houses or lands are deserted.

④ In villages, there has been increasing number of recreational farm for urbanite.

⑤ In 80% of village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part-time farmers.

⑥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Yeo-ju is incompetence in agricultural activity after UR.

In sum, Yeoju is now an area where the pace of urbanization is very tardy. However, this area, as an changeable area just before speedy urbanization, is expected to be urbanized drastically on condition that transportation develop. When plans suitable for this town are set up, Yeoju is expected to be a comfortable city.

Key Words : Yeoju, land utilization, agricultural land utilization decreasing, civic land utilization increasing, recreational farm, part-time farmer